

# 현장의 많은 문제를 오직복음으로 끝낸 이사야 -복음으로 여는 이사야- 이사야 7:14, 마태복음 1:21-23

정운돈 목사님

\* 사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마1:21-23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준근과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영생의 복음을 평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 생명을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고통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에서 유튜브 1등하는 사람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이다. 미션을 주고 성공하면 돈이나 선물을 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콘텐츠를 한다. 구독자가 3억 명이 넘는다. 어떤 사람은 미스터 비스트가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큰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영상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 봤다. 지금은 미디어시대다. 우리도 300% 준비해서 일천만 제자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 저는 말씀을 붙잡고 행복하게 도전한다.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이다. 여러분이 영적서밋이 되면 다 따라온다. 공부를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다 좋지만 그게 진짜는 아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 읽고 영적서밋이 되면 다 따라온다.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사귀면 된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통역자가 붙으면 된다. 중요한 건 영적서밋이다. 저는 예배시간에 항상 노트를 가지고 적었다. 그러다보니 교수님들을 만나도 교수님의 흑암에 담긴 부분들이 보였다. 예배성공하느라 사회에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다 된다. 이사야 선지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몇백 년, 몇천 년 후를 봤다. 하나님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답답한 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미래가 보인다. 지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게 ‘살림’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믿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았지만 최고의 복음을 발견한 놀라운 선지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닫고 자신이 죽고 핍박받는 그 길로 걸어갔다.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천 년의 응답을 허락하셨다. 그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영적서밋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시대를 살리는 6가지 전략적 도구인 영적 Leverage, 영적 Vessel, 영적 Transmission, 영적 Nobody, 영적 Platform, 영적 Outsourcing의 역할을 하였다. 성도들은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고, 누리기보다는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지금 여러분의 작은 일들은 발판인데

주인 행세는 하려 하면서 주인의식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빼앗긴 이 세상에서 계속 고통받고 갈등하고 힘들어야 한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란다. 걱정, 염려, 근심은 24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축복을 못 누리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과 평강이 온다. 흑암이 꺾이고 희망이 생긴다. 하나님은 제가 손해되는 것을 선택하는데도 더 큰 응답으로 갚아주셨다.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생뚱맞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복음으로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기를 원하신다. 계속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로 결론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내 안의 평강을 빼앗을 것이 없으면 결혼 낼 때 하늘보좌를 여시고 미래를 앞당겨 보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는 갈등도 있고 교회에 봉사하면서 오히려 돈을 낸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나 혼자서는 세상을 헤쳐갈 수 없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신·구약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된 것과 같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다. 그중 전반부 39장까지는 구약성경처럼 경교와 징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은 신약성경과 같이 복음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른다.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성경으로, 약 60번 정도 인용되고 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5명의 왕이 지배하는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하였고 또 강대국들의 침공이 있었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다. 국내외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갈등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가장 복음적인 말씀을 남긴 복음적인 선지자가 되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극복하고 끝을 내었다.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 1.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의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르지 못했다. 차라리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율법주의나 종교주의자는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으로는 말씀을 실천 안하는 훨씬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3절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말한다. ‘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교만한 상태를 말한다. 또 이사야 1장 17절에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선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배워야 한다. 저는 100년간 복지를 했던 집안으로서 누구보다 복지현장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복지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선행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이 남들을 돕고 베풀려고 하더라도 잘 배워야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는데, 그것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는 일들도, 정말 하려고 해야 보이는 부분들이다.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은 착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한다. 저는 원래 심장이 약한 사람,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언젠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말씀에 근거한 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란다.

(2)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여 미래에 달ziel 재앙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결국 재앙과 전쟁과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사람은 다 문제가 온다. 저는 나중에 문제 올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인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도 보일 것이다. 국가도, 건강도, 사업도 영적인 것도 작은 문제들을 미리 막지 못하면 큰 문제로 다가온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미리 보는 영적인 눈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 우리 나라도 세계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임진왜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 우리들이 준비하고 도전하는 금토일시대, 세 가지 들, 3기업 운동과 237나라 5000 종족 운동이 바로 2030부터 2080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게 교회다. 이사야 선지자는 1,000

년을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한 영적인 리더였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못하고 어리석고 답답하고 이해 못 해도 된다. 지금 복음 깨달으면 빛이 임할 것이다.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 감사해라. 지금 기뻐해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단 1분, 5분만 기도해도 반드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그게 데살로니가의 '성령의 큰 확신'이다. 그리고 이걸 전달할 때 전도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 것이다.

(3) 세 번째로 당시 주변의 강대국인 앗수르와 바벨론이 급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With, Immanuel, Oneness의 언약을 놓치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라하스바스"라 하라고 말씀하셨다. '마헬살라하스바스'는 '급히 노략질하다'라는 뜻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With, Immanuel, Oneness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후대는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W.I.O.협동조합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4)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된 상황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에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공직자가 타락하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말이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우리 후대들은 나라를 살리는 후대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더 큰 걸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봐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틀, 함정과 울무에 갇혀있는 인간들은 결코 징벌을 받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못된 놈들은 때리고 꾸지람해도 절대 말을 안 듣는다. 우리도 다 부족하다. 고통을 당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고 주인 삼으면 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영적서밋이 된다.

## 2.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약한 시대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1) 첫째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①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했다. 7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을 통해 예언도 하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기도 하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최초 사람의 타락 이후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이고 결국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였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②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신지 그 개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한다. 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참된 평강과 살림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말은 영어로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문제도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가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참사랑 RUTC에서는 '모든 문제해결상담소'도 만들어야 하겠다. 세상적인 상담으로는 감정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③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 즉,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다. ④ 무엇보다도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

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2) 이사야서는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복음화되어야 한다. ① 첫 번째는 복음 제자들의 자원하는 고백이다.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이 고백은 전도캠프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제자들의 구호가 되어야겠다. 직장에서 '나를 보내소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겠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② 또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황폐해 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남은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제자이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겠다.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 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그루터기 램넌트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 램넌트의 응답이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는 것이다. ③ 복음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언약을 문제 속에서 꼭 붙잡기 바란다. ④ 누구든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사야 55장 7절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사람은 살리고 도우시는 것이지 기대하고 바라는 존재가 아니다. 다 부족하다. ⑤ 결국 '복음운동'이란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는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현장에서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시기 바란다. 현장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오늘은 7.7.7기도 즉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 중에서 7망대 기도를 하겠다. 7망대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오력, 공중권세 결박, CVDIP, 세 가지 뜯이다.

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②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초월과 237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과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후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③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④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⑤ 나에게 시공간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⑥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세 가지 뜯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어떠한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언약과 축복과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며 증인이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 교단과 교회가 세계를 살려야하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보좌의 문을 여시고 영육 간에 넘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